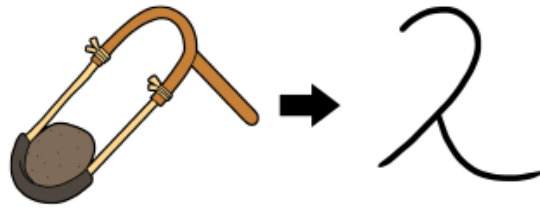


상형문자 ①



𡩺

그[其]
꺠

𡩺자는 '그것'이나 '오랑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𡩺자는 厂(기슭 엄)자와 𡩺(상기 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𡩺자는 매우 단순했다. 갑골문에서는 마치 국자와 같은 𡩺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축(牧畜)하던 사람들이 양이나 소 떼를 몰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를 그린 것이다. 돌맹이를 넣어 던지던 새총의 일종이라고도 한다. 후에 소전에서는 양과 사람이 결합하여 지금의 𡩺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𡩺자에 쓰인 厂자는 새총이 간략화된 것이고 𡩺자는 양(羊)과 사람(𡩺)이 변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𡩺자는 유목민족이었던 '돌꺠족'을 뜻하거나 '그'나 '그것'과 같이 오랑캐를 앞잡아 부르는 말이었다.

𡩺

갑골문

𡩺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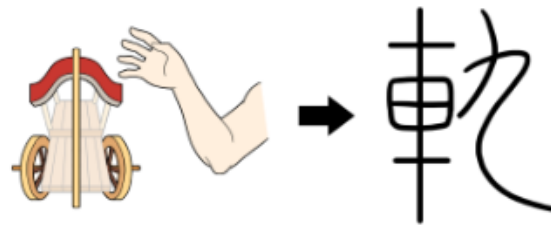
𡩺

소전

𡩺

해서

회의문자 ①



軌

바퀴자국
꺠:

軌자는 '수레바퀴'나 '바퀴자국'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軌자는 車(수레 차)자와 九(아홉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九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구→꺠'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軌자는 수레나 전차의 바퀴 자국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도로를 총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중에는 수레만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다. 수레가 다니던 길에는 바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홈이 파여 있었고 이것을 '꺠도'라 했다.

軌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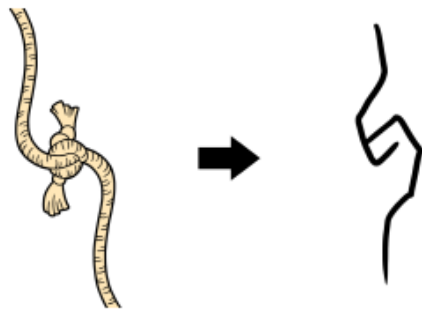
軌

소전

軌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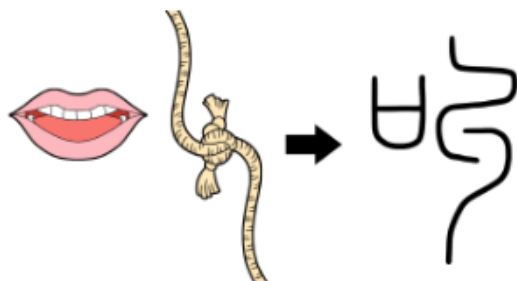
糾

엮힐 규

糾자는 '엮히다'나 '꼬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糾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乚(엮힐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乚자는 밧줄이나 실이 엉켜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엮히다'나 '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래 '엮히다'라는 뜻은 乚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실이 엉켜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하도록 系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糾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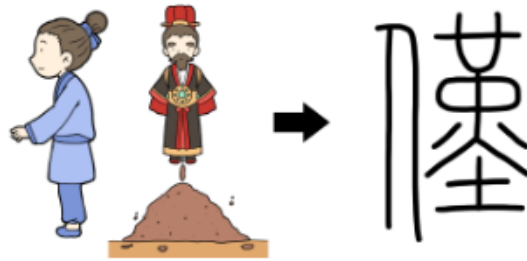
부르짖을
규

呌자는 '부르짖다'나 '(크게)외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呌자는 口(입 구)자와 乚(엮힐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乚자는 糾(엮힐 규)자의 본자(本字)로 끈이 엉켜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呌자는 이렇게 끈이 엉켜있는 모습을 그린 乚자에 口자를 결합한 것으로 '부르짖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呌자는 끈에 묶여있는(乚) 사람이 도움을 요청(口)한다는 의미에서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소전	해서

3
-
35

형성문자①



僅

겨우 근:

僅자는 '겨우'나 '근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僅자는 人(사람 인)자와 堇(진흙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堇자는 흙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진흙'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진흙'이라는 뜻을 가진 堇자에 人자가 결합한 僅자는 '겨우'나 '근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입에 풀칠조차 힘든 매우 가난한 사람을 진흙이 묻은 처량한 모습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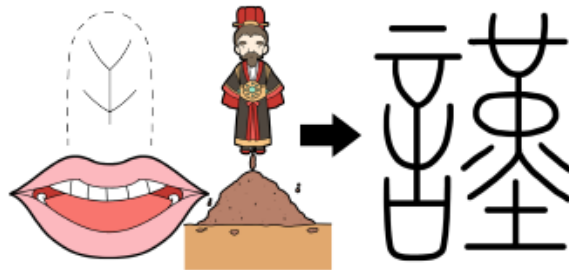
소전

僅

해서

3
-
36

형성문자①



謹

삼갈 근:

謹자는 '삼가다', '자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謹자는 言(말씀 언)자와 堇(진흙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堇자는 흙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 할만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흙이 곱고 세밀하므로 堇자가 '말을 세밀하게 한다'라는 뜻을 전달한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謹자는 공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언행을 뜻하기 때문에 '삼가다'나 '자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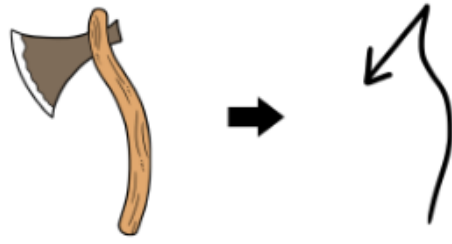
堇

소전

謹

해서

상형문자①



斤

근[무게
단위]/날[
刃] 근

斤자는 '도끼'나 '근(무게 단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斤자를 보면 끝이 꺾여있는 도구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을 나무를 깎거나 다듬는데 사용하던 '자귀'를 그린 것이다. 그러나 斤자는 단순히 '도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斤자는 금문에서부터는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끼는 사물을 자르거나 베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斤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자르다'나 '베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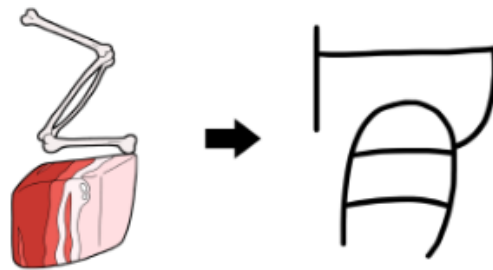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肯

즐길 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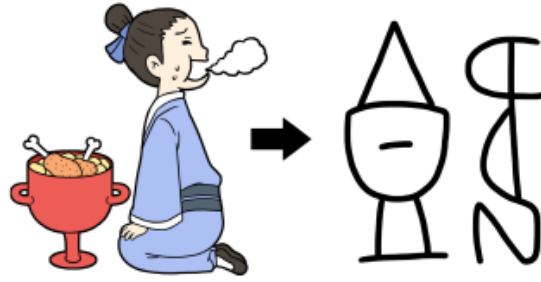
肯자는 '긍정하다'나 '수긍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肯자는 止(발 지)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冎(뿔을 먹)자와 月가 결합한 冎(뼈 사이의 살 긍)자가 그려져 있었다. 冎자는 뼈와 그 사이에 있는 살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冎자는 '뼈'를 月자는 '살'을 뜻했었다. 冎자는 후에 사람의 육체는 뼈와 살이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옳이 여기다'나 '수긍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해서에서는 冎자가 止자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의 肯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既

이미 기

既자는 '이미'나 '이전에',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旡(목델 기)자와 旡(고소 할 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旡자는 식기를 그린 것이다. 旡자의 갑골문을 보면 식기 앞에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벌린 사람이 旡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식사를 마친 사람이 트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旡자는 이미 거나하게 식사를 끝났다는 의미에서 '이미'나 '이전에'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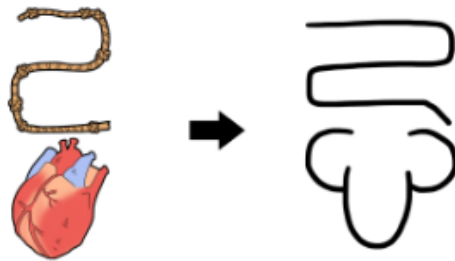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忌

꺼릴 기

忌자는 '꺼리다'나 '질투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忌자는 己(자기 기)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己자는 노끈을 구부린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자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남을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忌자는 '자기'라는 뜻을 가진 己자에 心자를 결합해 증오나 질투는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금문

소전

해서